

공 개



의안번호	제 14 호	보 고 사 항
보 고	2023. 4. 19.	
연 월 일	(제 8 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결과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4. 19.

1. 보고주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23. 3. 17.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 **결제연기권***이 있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시 실무상 어려움 상존**

* 약정을 준수해야만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 '20년 개정된 K-IFRS 제1001호에서는 '보고기간말 시점'에 **결제연기권의 존재 유무를 판단**

※ '보고기간말 시점'에 약정을 준수함 → 부채의 결제연기권이 존재 →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시점'에 약정을 준수 못함 → 부채의 결제연기권이 부존재 → 유동부채

○ '20년 개정사항은 약정 준수시점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유동부채를 **과다 분류**하는 문제 야기

* 보고기간말 약정 준수 여부 판단이 어려운 약정(예: 보고기간말 이후 의무가 발생하는 약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동부채로 분류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 보고기간말 시점에 약정사항을 충족해야 부채의 **결제연기권이 존재**

②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 보고기간말 시점에 부채의 결제연기권이 있는지 판단할 때, **약정사항의 충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③ (주식 공시)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식에 공시(문단 76ZA)

-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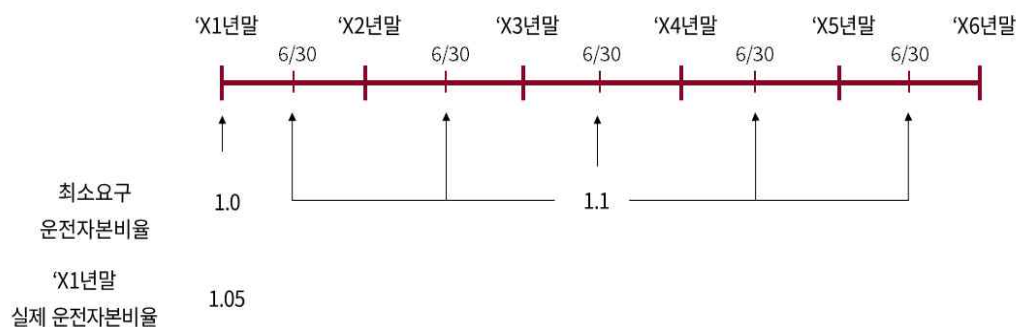
-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 예를 들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 등

[사례]

- 20X1.12.31(보고기간말) 현재 부채의 잔여 만기는 5년
- 부채 즉시 상환조건 ① 20X1.12.31(보고기간말) 현재 운전자본비율*이 1.0 미만이거나, ② 보고기간말 이후 매년 6월 30일의 운전자본비율이 1.1 미만인 경우
- 20X1.12.31(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운전자본비율은 1.05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69(1)~(3)의 기준(유동부채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가정

* 운전자본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총자본



➔ ① 20X1.12.31에 운전자본비율이 1.0 이상이도록 하는 약정사항:

약정을 충족($1.05 > 1$)하므로 부채 결제연기권이 존재 → 비유동부채

➔ ② 보고기간말 이후 매년 6월 30일의 운전자본비율 1.1 이상이도록 하는 약정사항:

약정의 충족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부채 결제연기권이 존재 → 비유동부채*

*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 주식 공시

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 **(시행일)** '20년 개정 및 이번 개정 모두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 가능
 - '20년 개정 일부가 이번 개정에서 수정되었으므로, 조기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 개정 사항을 동시에 적용해야 함
- ☐ **(경과규정)**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함

라.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 **(비유동부채 범위 확대)** 기업이 보고기간 후 1년 이내 준수를 전제로 부채의 결제연기권을 보유*한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부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개정 전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미래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동부채로 분류
- ☐ **(공시)** 정보이용자는 비유동부채가 12개월 이내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
- ☐ **(시행일 연기)** '20년 개정의 시행일이 1년 연기(기존 '23년 1월 1일에서 '24년 1월 1일 이후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개정경과

- ☐ 2023. 1. 13.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 2023. 1. 16. ~ 2023. 2. 15.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 2023. 3. 17.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나. 제2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서면보고(2023.4.7.)

다. 관련법규(붙임1)

<별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3. 3. 17.

저작권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3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재무보고기준의 본문,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3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결론도출근거 개정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문단 60, 71, 72A, 74, 139U를 개정하였고, 문단 72B, 139W를 추가하였다. 문단 76 바로 다음에 문단 76ZA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69와 75는 개정되지 않았으나 참조하기 쉽도록 포함하였다.

구조와 내용

재무상태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 60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66~76B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유동부채

-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4)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문단 69(2))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문단 69(3)) 경우

71 기타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되지는 않지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기타 지급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즉,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이 경우 문단 72A ~7574와 75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4))

72A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72B~7573~7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판약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다. 비록 대여자가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말 후에 확인하더라도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72B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1) 문단 74~75의 예시와 같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4)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

은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2)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말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4)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4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조건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75 그러나 대여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6ZA 문단 69~75를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72B(2)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1)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2)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

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139U 2020년 12월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69, 73, 74, 76를 개정하였고 문단 72A, 75A, 76A, 76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조기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 내용을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발표 후 조기적용하는 경우(문단 139W 참조), 그 기간에 대해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도 적용한다.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39W 2023년 X월에 발표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따라 문단 60, 71, 72A, 74, 139U를 개정하였고 문단 72B, 76ZA를 추가하였다.

(1)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발표 후 문단 139U의 개정 내용을 즉시 적용한다.

(2) 다른 모든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도 적용한다.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 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3. 3. 1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8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48A 위의 제목이 수정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C48EA~BC48EF 및 관련 제목이 문단 BC48E 다음에 추가되었다. 문단 BC105FD~BC105FF 및 관련 제목이 문단 BC105FC 다음에 추가되었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 문단 BC48EA~BC48EF, 문단 BC105FD~BC105FF 및 관련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재무상태표

유동부채(문단 69~76B)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4), 72A~76)
- 2020년 개정내용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4), 72A~76ZA) - 2022년 개정내용

BC48EA IASB는 2022년 10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발표하였다. IASB는 다음의 사항을 위해 개정하였다.

- (1) IASB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을 준수해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차입 약정으로부터 발생한 부채에 관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 (2) IASB는 2020년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 내용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 (가) 보고기간말(보고일) 현재 부채를 12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

- (나) 계절성의 기대효과나 기업의 미래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서로 다른 날짜에 서로 다른 약정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와 같이, 차입 약정이 기업에 요구하는 특정일의 재무상태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협상된 약정사항의 설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 (다) 기업의 재무상태나 성과에 기초하지 않는 약정사항(비재무적 약정사항)과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누적 재무성과나 현금흐름에 기초하는 약정사항(재무성과 약정사항)을 기업이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일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의 분류와 공시

BC48EB IASB는 2020년 개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였다. 특히 IASB는 2020년 개정 내용을 일부 상황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IASB는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12개월 이내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부채를 결제할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기업은 그러한 상환을 회피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보고일 후 기업의 약정사항 준수 여부에 따라 관련 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도 있고 12개월 후에 상환될 수도 있다. 2020년 개정 내용은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모형의 제약 내에서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는 한 가지 방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모형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족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자체는 그러한 조건부 부채 상환 시점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BC48EC IASB는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IAS 1의 다음 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1)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IASB는 기업이 보고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되도록 요구되는 약정사항만이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분류 결과를 피한다(예: 사업의 계절성이 높은 일부 기업의 경우).
 - (나) 비재무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와 관련한 약정사항에 대해 2020년 개정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IASB가 명시할 필요가 없어져,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 (다)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다른 많은 우려를 해결한다.
- (2)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정보의 공시 -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식에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정보가 약정사항의 성격과 부채가 비유동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48ED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의 유동·비유동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 내용은 그러한 부채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과 연결된다.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하여 주식에 공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와 함께 고려될 때, 분류 요구사항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사유로 문단 76ZA의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기업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IASB는 부채를 유동성 순으로 표시하는 기업의 경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에 대해 유동성 위험 노출에 관한 IFRS 7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비슷한 정보를 공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BC48EE 개정 내용 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유동부채가 약정사항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공시를 요구하면 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의 관점에서, 개정 내용은 과도한 공시를 초래하여 약정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대해 IASB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 (1) IAS 1 문단 30A와 31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은 약정사항에 관하여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하고,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약정사항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것이다.
- (2) 중요성 판단 과정에서 추가 지침이 필요한 기업은 실무서 제2호 '중요성의 판단' 문단 81~83의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 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가) 기업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위반의 결과와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다.
 - (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는 해당 위반의 결과에 관계없이 중요하지 않다.

기타 고려사항

BC48EF IASB는 개정내용을 개발하면서, 다음 사항도 고려하였다.

- (1)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의 표시 - IASB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주된 이유는 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다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비유동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오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를 재무상태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는 대신, 주석에서 비유동부채가 조건부임을 설명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을 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IASB는 이 제안을 확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주석에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할 때 기업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 받는다.

- (2) 약정사항 준수 기대에 대한 공시 - IASB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보고일 후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그 준수 방법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가 정보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정보는 작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3) 기타 조건부 결제 조건 - IASB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일부 상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문단 72B의 분류 요구사항이 개정내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부채에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 할 의도였다. 그러나 제안된 명확화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대신 IASB는 문단 72B의 요구사항을 차입 약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에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과규정과 시행일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IAS 1 개정)

BC105FD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2022년 개정)를 다음의 이유로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1) 부채를 당기 및 과거기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비교금액을 재분류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비교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 (2)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BC105FE 2020년 개정에서 도입된 요구사항 중 일부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2022년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개정 시행일을 2022년 개정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연기하였다. IASB는 기업이 비교적 단기간 내 부채의 분류에 대한 평가를 변경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

BC105FF IASB는 2020년 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2022년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같은 날부터 2020년 개정도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 수정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3. 3. 17.

이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중요성에 대한 판단’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이 번역한 자료입니다. 일부 내용은 IASB가 발표한 영어원문과 달리 표현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무서는 K-IFRS를 구성하지 않으며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에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 실무서의 구체적인 성격과 위상은 IASB가 발표한 영어원문과 이 번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3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재무보고기준의 본문,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3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내 용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 수정 24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 수정

다음 개정 내용은 IAS 1 개정에 따른 결과이다

사례 P가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약정에 대한 정보

사례 P-약정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 평가

배경

지난 5년 간 급속히 성장한 기업이 최근 다소간의 유동성 문제를 겪었다. 당기 보고기간 중 기업은 장기차입금을 받았다. 차입약정에는 기업에게 매 보고일에 측정되는 부채-자본비율을 일정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약정에 따르면,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 부채와 자본 수치를 기초로 부채-자본비율을 계산해야한다. 기업이 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대여자는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현지 법률이나 규제는 기업이 재무제표에 약정 조건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적용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 대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 1 문단 76ZA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이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업은 약정 위반의 결과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약정의 존재와 그 조건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를 평가한다.

이 경우 기업은 최근의 유동성 문제를 고려하면서, 약정 위반이 발생한 결과로 장기차입금 상환 계획이 앞당겨질 경우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기업은 약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시나리오 1—대출기관은 기업이 작성한 3개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한 예측치에 10% 여유치를 더하여 약정 기준치를 정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기업은 과거에 사업계획대로 달성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는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약정의 존재와 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재무제표에 공시하였다.

시나리오 2—대출기관은 기업이 작성한 3개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한 예측치에 200% 여유치를 더하여 약정 기준치를 정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기업은 과거에 사업계획대로 달성한 이력과 약정 기준치에 포함된 여유치의 크기를 기초로 약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약정 위반의 결과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약정의 존재와 그 조건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개정안 영·한 대비표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Amendments to IAS 1</p> <p>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Paragraphs 60, 71, 72A, 74 and 139U are amended. Paragraphs 72B and 139W are added. Paragraph 76ZA is added immediately after paragraph 76.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Paragraphs 69 and 75 are not amended but have been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p> </div>	<p>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문단 60, 71, 72A, 74, 139U를 개정하였고, 문단 72B, 139W를 추가하였다. 문단 76 바로 다음에 문단 76ZA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69와 75는 개정되지 않았으나 참조하기 쉽도록 포함하였다.</p> </div>
Structure and content	구조와 내용
<p>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p> <p>...</p> <p>Current/non-current distinction</p> <p>60 An entity shall present current and non-current assets, and current and non-current liabilities, as separate classifications in i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66–76B except when a presentation based on liquidity provides information that is reliable and more relevant. When that exception applies, an entity shall present all assets and liabilities in order of liquidity.</p>	<p>재무상태표</p> <p>...</p> <p>유동과 비유동의 구분</p> <p>60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66~76B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p>
Current liabilities	유동부채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69 An entity shall classify a liability as current when:</p> <p>(a) it expects to settle the liability in its normal operating cycle;</p> <p>(b) it holds the liability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trading;</p> <p>(c) the liability is due to be settled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or</p> <p>(d) it does not have the right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to defer settlement of the liability for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p> <p>An entity shall classify all other liabilities as non-current.</p> <p>...</p>	<p>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p> <p>(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p> <p>(4)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p> <p>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p>
<p>...</p> <p><i>Hel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trading (paragraph 69(b)) or due to be settled within twelve months (paragraph 69(c))</i></p> <p>71 Other current liabilities are not settled as part of the normal operating cycle, but are due for settlement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or hel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trading. Examples are some financial liabilities that meet the definition of held for trading in IFRS 9, bank overdrafts, and the</p>	<p>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문단 69(2))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문단 69(3)) 경우</p> <p>71 기타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되지는 않지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current portion of non-current financial liabilities, dividends payable, income taxes and other non-trade payables. Financial liabilities that provide financing on a long-term basis (ie are not part of the working capital used in the entity's normal operating cycle) and are not due for settlement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are non-current liabilities, subject to paragraphs <u>72A-7574</u> and 75.</p> <p>...</p>	<p>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기타 지급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즉,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이 경우 문단 <u>72A ~7574</u>와 75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p> <p>...</p>
<p><i>Right to defer settlement for at least twelve months (paragraph 69(d))</i></p> <p>72A An entity's right to defer settlement of a liability for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must have substance and, as illustrated in paragraphs <u>72B-75</u> 73-75, must exist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If the right to defer settlement is subject to the entity complying with specified conditions, the right exist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only if the entity complies with those condition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The entity must</p>	<p>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4))</p> <p>72A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u>72B~7573~75</u>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판약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다. 바록 대여 자기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말 후에 확인하더라도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comply with the condition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even if the lender does not test compliance until a later date.</p>	
<p><u>72B An entity's right to defer settlement of a liability arising from a loan arrangement for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may be subject to the entity complying with conditions specified in that loan arrangement (hereafter referred to as 'covenant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paragraph 69(d), such covenants:</u></p> <p><u>(a) affect whether that right exist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as illustrated in paragraphs 74–75—if an entity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covenant on or before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Such a covenant affects whether the right exist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even if compliance with the covenant is assessed only after the reporting period (for example, a covenant based on the entity's financial position at the end of the reporting</u></p>	<p><u>72B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u></p> <p><u>(1) 문단 74~75의 예시와 같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4)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u></p> <p><u>(2)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말 6개월 후 재무상태에</u></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period but assessed for compliance only after the reporting period).</p> <p>(b) do not affect whether that right exist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if an entity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covenant only after the reporting period (for example, a covenant based on the entity's financial position six months after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p> <p>...</p>	<p><u>기초한 약정사항</u>),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4)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p>
<p>74 When an entity breaches a <u>covenant condition</u> of a long-term loan arrangement on or before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with the effect that the liability becomes payable on demand, it classifies the liability as current, even if the lender agreed, after the reporting period and before the authoris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issue, not to demand payment as a consequence of the breach. An entity classifies the liability as current because,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it does not have the right to defer its settlement for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at date.</p>	<p>74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u>약정사항조건</u>을 위반했을 때 대역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역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 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p>
<p>75 However, an entity classifies the</p>	<p>75 그러나 대역자가 보고기간말 이</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liability as non-current if the lender agreed by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to provide a period of grace ending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within which the entity can rectify the breach and during which the lender cannot demand immediate repayment.</p>	<p>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역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u>76ZA In applying paragraphs 69–75, an entity might classify liabilities arising from loan arrangements as non-current when the entity’s right to defer settlement of those liabilities is subject to the entity complying with covenants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see paragraph 72B(b)). In such situations, the entity shall disclose information in the notes that enables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understand the risk that the liabilities could become repayable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including:</u></p> <p><u>(a) information about the covenants (including the nature of the covenants and when the entity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m) and the</u></p>	<p><u>76ZA 문단 69~75를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72B(2)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u></p> <p><u>(1)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u></p> <p><u>(2)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u></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u>carrying amount of related liabilities.</u></p> <p>(b) <u>facts and circumstances, if any, that indicate the entity may have difficulty complying with the covenants—for example, the entity having acted during or after the reporting period to avoid or mitigate a potential breach. Such facts and circumstances could also include the fact that the entity would not have complied with the covenants if they were to be assessed for compliance based on the entity’s circumstance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u></p>	<p><u>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 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u></p>
Transition and effective date	시행일과 경과규정
<p>...</p> <p>139U <i>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i>, issued in January 2020 amended paragraphs 69, 73, 74 and 76 and added paragraphs 72A, 75A, 76A and 76B.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u>1 January 2024</u> 1 January 2023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Earlier application is</p>	<p>...</p> <p>139U 2020년 12월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69, 73, 74, 76를 개정하였고 문단 72A, 75A, 76A, 76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u>2024년 1월 1일</u>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조기적용할 수 있다. <u>만약</u></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permitted. <u>If an entity applies tho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after the issue of <i>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i> (see paragraph 139W), it shall also apply <i>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i> for that period.</u> If an entity applies <u><i>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i> those amendments</u>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p> <p>...</p>	<p><u>이 개정 내용을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발표 후 조기적용하는 경우(문단 139W 참조), 그 기간에 대해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도 적용한다.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아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u></p> <p>...</p>
<p>139W <u><i>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i>, issued in October 2022, amended paragraphs 60, 71, 72A, 74 and 139U and added paragraphs 72B and 76ZA. An entity shall apply:</u></p> <p>(a) <u>the amendment to paragraph 139U immediately on issue of <i>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i>.</u></p> <p>(b) <u>all other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4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e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also</u></p>	<p>139W <u>2023년 X월에 발표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따라 문단 60, 71, 72A, 74, 139U를 개정하였고 문단 72B, 76ZA를 추가하였다.</u></p> <p>(1) <u>‘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발표 후 문단 139U의 개정 내용을 즉시 적용한다.</u></p> <p>(2) <u>다른 모든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도 적용한다.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u></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u>apply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 for that period. If an entity applies 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u></p>	<p><u>부채'를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u></p>
<p>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p> <p><i>This Basis for Conclusions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AS 1.</i></p> <div data-bbox="193 1189 786 165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The heading above paragraph BC48A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Paragraphs BC48EA - BC48EF and related headings are added after paragraph BC48E. Paragraphs BC105FD - BC105FF and related headings are added after paragraph BC105FC. For ease of reading, paragraphs BC48EA - BC48EF and BC105FD - BC105FF and related headings have not been underlined.</p> </div>	<p>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p> <p>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p> <div data-bbox="810 1189 1406 165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문단 BC48A 위의 제목이 수정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C48EA~BC48EF 및 관련 제목이 문단 BC48E 다음에 추가되었다. 문단 BC105FD~BC105FF 및 관련 제목이 문단 BC105FC 다음에 추가되었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 문단 BC48EA~BC48EF, 문단 BC105FD~BC105FF 및 관련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div>
<p>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p>	<p>재무상태표</p>
<p>...</p> <p>Current liabilities (paragraphs 69–76B)</p> <p>...</p>	<p>...</p> <p>유동부채(문단 69~76B)</p> <p>...</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Right to defer settlement for at least twelve months (paragraphs 69(d) and 72A-76)—2020 amendments</p> <p>...</p> <p>Right to defer settlement for at least twelve months (paragraphs 69(d) and 72A-76ZA)—2022 amendments</p>	<p>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4), 72A~76)-2020년 개정 내용</p> <p>...</p> <p>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4), 72A~76ZA)-2022년 개정 내용</p>
<p>BC48EA In October 2022, the IASB issued <i>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i>. The IASB made the amendments to:</p> <p>(a) improve the information an entity provides about liabilities arising from loan arrangements for which an entity's right to defer settlement of those liabilities for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is subject to the entity complying with conditions specified in the loan arrangem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 and</p> <p>(b) respond to stakeholders' concerns about the outcomes of applying the amendments in <i>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i> issued in 2020. In particular,</p>	<p>BC48EA IASB는 2022년 10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발표하였다. IASB는 다음의 사항을 위해 개정하였다.</p> <p>(1) IASB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을 준수해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차입 약정으로부터 발생한 부채에 관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였다.</p> <p>(2) IASB는 2020년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 내용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시하였다.</p> <p>(가) 보고기간말(보고일) 현재 부채를 12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stakeholders said the 2020 amendments:</p> <p>(i) could result in an entity classifying a liability as current even if,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reporting date), the entity has no contractual obligation to settle the liability at that date or within twelve months;</p> <p>(ii) took no account of the design of covenants negotiated to reflect an entity's required financial position or performance at specified dates, such as when a loan arrangement specifies different covenants at different dates to reflect the expected effects of seasonality or the entity's future performance; and</p> <p>(iii) were unclear about how an entity would assess, at the reporting date, whether it would have complied with covenants that are not based on an entity's financial position or performance (non-financial covenants) and covenants based on cumulative financial</p>	<p>가 없더라도 부채는 유동 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p> <p>(나) 계절성의 기대효과나 기업의 미래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서로 다른 날짜에 서로 다른 약정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와 같이, 차입 약정이 기업에 요구하는 특정일의 재무상태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협상된 약정사항의 설계는 고려되지 않았다.</p> <p>(다) 기업의 재무상태나 성과에 기초하지 않는 약정사항(비재무적 약정사항)과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누적 재무성과나 현금흐름에 기초하는 약정사항(재무성과 약정사항)을 기업이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일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performance or cash flows for a period extending beyond the reporting period (financial performance covenants).</p>	
<p><i>Classification and disclosure of 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i></p>	<p>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의 분류와 공시</p>
<p>BC48EB The IASB considered stakeholders' concerns, which included new information it had not considered when developing the 2020 amendments. In particular, the IASB considered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that would result from applying the 2020 amendments in some circumstances. The IASB observed that an entity may be unable to avoid having to repay a liability within twelve months if the entity's right to defer settlement of the liability is subject to compliance with covenants during that period. The entity may be unable to avoid such repayment even if, at the reporting date, the entity has no contractual obligation to settle the liability within that</p>	<p>BC48EB IASB는 2020년 개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였다. 특히 IASB는 2020년 개정 내용을 일부 상황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IASB는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12개월 이내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부채를 결제할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기업은 그러한 상환을 회피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보고일 후 기업의 약정사항 준수 여부에 따라 관련 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도 있고 12개월 후에 상환될 수도 있다. 2020년 개정 내용은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모형의 제약 내에서 이러한 조건</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period. Therefore, in such situations, the related liability could be repayable either within or after twelve months, depending on whether the entity complies with those covenants after the reporting date. The 2020 amendments specified one way of reflecting this conditionality within the constraints of a model that classifies liabilities as either current or non-current. However, the IASB conclude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such a binary classification model, alone, cannot meet user information needs in such situations. For example, the classification of a liability as current or non-current does not in itself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otential effects of such conditionality on when the liability is repayable.</p>	<p>을 반영하는 한 가지 방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모형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족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자체는 그러한 조건부 부채 상환 시점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p>
<p>BC48EC Having considered the new information, the IASB decided to amend the requirements in IAS 1 on:</p>	<p>BC48EC IASB는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IAS 1의 다음 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p> <p>(1)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IASB는</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a) <i>the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with covenants as current or non-current</i>—the IASB decided that only covenants with which an entity is required to comply on or before the reporting date should affect the classification of a liability as current or non-current. The IASB concluded that amending the requirements in this way would:</p> <p>(i) avoid classification outcomes that might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for example, for some entities whose business is highly seasonal);</p> <p>(ii) make it unnecessary for the IASB to specify how the 2020 amendments apply to non-financial and financial performance covenants, thereby avoiding adding complexity to the requirements; and</p> <p>(iii) resolve many of the other concerns stakeholders raised.</p>	<p>기업이 보고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되도록 요구되는 약정사항만이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p> <p>(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분류 결과를 피한다(예: 사업의 계절성이 높은 일부 기업의 경우).</p> <p>(나) 비재무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와 관련한 약정사항에 대해 2020년 개정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IASB가 명시할 필요가 없어져,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p> <p>(다)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다른 많은 우려를 해결한다.</p> <p>(2)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정보의 공시 –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식에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정보가 약정사항의 성격과 부채가 비유</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b) <i>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i>—the IASB decided to require an entity to disclose information in the notes that enables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understand the risk that 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 could become repayable within twelve months. The IASB concluded that this information would be useful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because it would allow them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covenants and the risk that a liability classified as non-current could nonetheless be repayable within twelve months.</p>	<p>동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p>
<p>BC48ED The amendments to the requirements on the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with covenants as current or non-current are linked to the requirements on disclosure about such liabilities. The IASB concluded that the classification requirements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when considered</p>	<p>BC48ED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의 유동·비유동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 내용은 그러한 부채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과 연결된다.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하여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와 함께 고려될 때, 분류 요구사항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사유로 문단 76ZA의 공시 요구사항은</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together with the requirements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 in the notes. For this reason, the disclosure requirements in paragraph 76ZA apply only to an entity that presents current and non-current liabilities as separate classifications in i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However, the IASB observed that an entity that presents liabilities in order of liquidity might nonetheless disclose similar information about liabilities with covenants when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IFRS 7 on its exposure to liquidity risk.</p>	<p>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기업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IASB는 부채를 유동성 순으로 표시하는 기업의 경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에 대해 유동성 위험 노출에 관한 IFRS 7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비슷한 정보를 공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p>
<p>BC48EE Some respondents to the draft amendments noted that, because non-current liabilities are often subject to covenants, the disclosure requirements could result in entities providing a large volume of detailed information. In these respondents' view, the amendments could result in excessive disclosure, which might obscure material</p>	<p>BC48EE 개정 내용 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유동부채가 약정사항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공시를 요구하면 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의 관점에서, 개정 내용은 과도한 공시를 초래하여 약정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검토의견</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information about covenants. In response to these comments, the IASB observed that:</p> <p>(a) in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30A and 31 of IAS 1, an entity would assess what information about covenants is material and determine how to aggregate such information. Accordingly, the entity would not disclose immaterial information about covenants that would reduce the understandability of its financial statements by obscuring material information.</p> <p>(b) an entity in need of further guidance when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could refer to the guidance on assessing the materiality of information about covenants in paragraphs 81–83 of IFRS Practice Statement 2 <i>Making Materiality Judgements</i>. That guidance explains that:</p> <p>(i) an entity considers both the consequences and the likelihood of a breach occurring when assessing</p>	<p>에 대해 IASB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p> <p>(1) IAS 1 문단 30A와 31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은 약정사항에 관하여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하고,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약정사항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것이다.</p> <p>(2) 중요성 판단 과정에서 추가 지침이 필요한 기업은 실무서 제2호 ‘중요성의 판단’ 문단 81~83의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 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p> <p>(가) 기업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위반의 결과와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다.</p> <p>(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는 해당 위반의 결과에 관계없이 중요하지 않다.</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whether information about a covenant is material; and</p> <p>(ii) information about a covenant for which there is only a remote likelihood of a breach occurring is immaterial irrespective of the consequences of that breach.</p>	
<p><i>Other considerations</i></p> <p>BC48EF When developing the amendments, the IASB also considered:</p> <p>(a) <i>the presentation of 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i>—when it exposed draft amendments for comment, the IASB proposed to require an entity to present 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 separately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e main reason for this proposal was to avoid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being misled by a non-current classification without any indication that the liability could become repayable within twelve months. However, feedback on the draft amendments suggested that users of</p>	<p>기타 고려사항</p> <p>BC48EF IASB는 개정내용을 개발하면서, 다음 사항도 고려하였다.</p> <p>(1)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의 표시 - IASB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주된 이유는 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다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비유동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오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를 재무상태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는 대신, 주석에서 비유동부채가 조건부임을 설명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을 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IASB는 이 제안을 확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주석에서</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financial statements would not be misled if the conditionality of non-current liabilities were explained in the notes instead of through separate presentation of these liabilities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erefore, the IASB decided not to finalise the proposal. Instead, i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 in the notes, an entity is required to disclose the carrying amount of related liabilities.</p> <p>(b) <i>disclosure about expected compliance with covenants</i>—when it exposed draft amendments for comment, the IASB proposed to require an entity to disclose whether and, if so, how it expected to comply with covenants after the reporting date. Feedback on the draft amendments suggested that the costs of providing this information might outweigh the benefits of providing it. Consequently,</p>	<p>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받는다.</p> <p>(2) 약정사항 준수 기대에 대한 공시 - IASB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보고일 후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그 준수 방법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가 정보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정보는 작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p> <p>(3) 기타 조건부 결제 조건 - IASB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일부 상황을 명확히 할</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the IASB decided instead to require an entity to disclose any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indicate the entity may have difficulty complying with covenants. The IASB concluded that this information would not be costly to prepare and would be useful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by helping them to understand the risk that 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 could become repayable within twelve months.</p> <p>(c) <i>other conditional settlement terms</i>—when it exposed draft amendments for comment, the IASB proposed to clarify some situations in which an entity would not have a right to defer settlement of a liability. The IASB intended the clarification to avoid the classification requirements in paragraph 72B being applied to liabilities outside the scope of the amendments. However, feedback on the draft amendments suggested that the proposed clarification</p>	<p>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문단 72B의 분류 요구사항이 개정내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부채에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 할 의도였다. 그러나 제안된 명확화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대신 IASB는 문단 72B의 요구사항을 차입 약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에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p> <p>...</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would fail to achieve that objective. Therefore, the IASB decided instead to specify that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72B apply only to liabilities arising from loan arrangements.</p> <p>...</p>	
Transition and effective date	경과규정과 시행일
<p>...</p> <p><i>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 (Amendments to IAS 1)</i></p> <p>BC105FD The IASB decided to require entities to apply <i>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i> (2022 amendments)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because:</p> <p>(a) classifying a liability as current or non-current on the same basis in current and prior periods would result in more comparable, and thus more useful, information than the information that would result from not reclassifying comparative amounts; and</p> <p>(b) applying the amendments retrospectively is not expected to be onerous for entities.</p>	<p>...</p> <p>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IAS 1 개정)</p> <p>BC105FD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2022년 개정)를 다음의 이유로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p> <p>(1) 부채를 당기 및 과거기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비교금액을 재분류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비교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p> <p>(2)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p>
<p>BC105FE The 2022 amendments changed some of the requirements</p>	<p>BC105FE 2020년 개정에서 도입된 요구사항 중 일부는, 그러한 요구</p>

IAS 1 본문 개정	제1001호 본문 개정안
<p>introduced by the 2020 amendments before those requirements were in effect. Therefore, the IASB deferred the effective date of the 2020 amendments to align it with the effective date of the 2022 amendments. The IASB did so to avoid an entity potentially having to change its assessment of the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twice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p>	<p>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2022년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개정 시행일을 2022년 개정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연기하였다. IASB는 기업이 비교적 단기간 내 부채의 분류에 대한 평가를 변경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p>
<p>BC105FF The IASB observed that it would be impractical to apply the 2022 amendments early without also applying the 2020 amendments. Therefore, the IASB decided to allow an entity to apply the 2022 amendments early, but only if the entity also applies the 2020 amendments from the same date.</p>	<p>BC105FF IASB는 2020년 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2022년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같은 날부터 2020년 개정도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p>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②~③ (생 략)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⑦ (생 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 ②~⑦ (생 략)

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4. (생 략)

5. 법령 또는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회계 또는 외부감사 관련 기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제29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公正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세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⑩ (생략)

제4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에 부의를 요청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⑬ (생략)

제5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한국회계기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내용 및 외부 의견청취 결과

2. 제1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의사록

②~③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락처	02-2100-2695